

“재밋고 찾아가고 싶은 도서관으로 활력 더해야”

강 시장, 23번째 월요대화서

찾고싶은 ‘꿀잼도서관’ 모색

특화 콘텐츠·내실화 등 제안

광주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는 ‘꿀잼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전날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23번째

월요대화를 갖고 도서관 효과와 실태 분석, 발전 방향 등을 모색했다.

박주현 전남대 교수는 ‘누구나 갈 수 있는 도서관’, 소외 계층을 위한 ‘흑인 전용 도서관’에 힘쓴 미국 앤드루 카네기 사례를 소개한 뒤 “광주 시민은 독서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인식하고 있지만 긍정적 경험과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도서관은 만남의 장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 수 향상과 홍보 강화, 독서의 즐거움 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도서관 운영 방향

등을 제안했다.

주흥 예술치료학 박사는 “아프고, 어려운 이들이 ‘수다의 주인공’이 되게 하면 삶의 가치와 재미를 찾아가는 경우가 적잖다”며 “책을 매개로 운영되는 다양한 독서 동아리 활동은 자연스럽게 시민교육과 연결되고 광주라는 공동체를 지켜내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서동아리 ‘북시즈닝’ 회원인 대학생 최혜솔씨는 “어릴 적부터 엄마와 주말마다 찾은 도서관은 제게 또 다른 집”

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는 대학생, 청년들의 독서량을 높이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콘텐츠가 많아지고, 찾아가고 싶은 지역 도서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지혜한국도서관협회 인문사업팀장은 지역도서관과 서점이 함께 독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책의 도시 전주’, 순천시의 1인 1책 쓰기 사업 등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도서관과 책을 산업화와 연계해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라 전남대 인문학연구원장은 “전문가·시민으로 구성된 운영위 운영과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테마별 특화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명자 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 이사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작은도서관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수지만 운영이 잘 되는 시설은 지원을 확대하고 바깥 근접한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독서,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시대가 변하면서 도

서관이 주는 의미와 가치, 시민이 찾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도서관이란 어떠한 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며 “인문콘텐츠 발굴 등 대화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일상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포용도시 광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립 예정인 광주 대표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의 역할을 고민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재밋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나무 묘목 받아가세요

28일 오전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2023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찾은 많은 시민들이 사인머스켓, 제주산수국 등의 묘목을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전남도,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 총력

2천여 농가 16만군 폐사 피해

10개 대책사업 2,862억 투입

전남도가 꿀벌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동기에 다시 발생한 꿀벌 폐사로 경영난을 겪는 사육농가의 경영회복을 위해 방역 등 10개 대책사업에 2,862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가 최근 한 달 동안 양봉협회와 합동으로 양봉 등록농가 대상 피해 조사에 나선 결과, 모두 2,042농가에서 16만군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대상 26만7,000군의 60%에 달하는 수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원인을 방제제 내성으로 인한 꿀

벌 응에 감염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꿀벌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비롯, 꿀벌 입식 및 사육 기자재 지원 등 10개 사업에 2,86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꿀벌 피해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입식비, 사료구매 자금 등에 58억6,600만원을 지원한다.

입식 지원비 한도를 2,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군당 지원 단가도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등 총 45억원을 투입한다.

사료 구매자금의 경우 11억3,600만원을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말벌 퇴치 장비 및 벌통 내 스마트센서 설치 지원에도 2억3,000만원을 배정했다.

꿀벌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는 16개

사업에 2,751억원을 2026년까지 지원한다.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 2종에 30억원을 투입하고, 지원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꿀벌 방역약품 지원에는 23억원을 투입하고, 전남농업기술원과 사육농가 역량 강화 교육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꿀벌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가족재해보험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2년 연속 발생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꿀벌 농가가 조기에 회복하도록 입식비 지원 등 재해 발생에 준하는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식량작물 생산 등 공익적 가치가 큰 꿀벌의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도, 영농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주력

알람 시스템·표지판 설치 등

전남도가 4월 영농철을 앞두고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지역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고령인구 비율이 25.2%(2022년 12월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이들이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농기계 교통사고 감지 알람 시스템을 보급하고, 농기계 주의 표지판 설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홍보·교육에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 진입로 과속 방지시설 119곳, 사고 위험지역 경광등 설치 1,895

곳, 농기계 등화장치 1만2,693대 부착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2021년 14명이던 전남지역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 7명으로 줄여 50%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농기계 교통사고는 차대차 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높고, 안전에 취약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의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펼치는 등 사고 감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시,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28일 “2023년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은 제안서 심사 등을 통해 총 30개 기업을 선정해 각 기업에서 가족친화경영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은 심사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4년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대상 기업은 심사에서 우대한다.

2019~2022년 공모사업 수혜기업은 신청할 수 없으나, 가족친화 최고기업의 경우는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하다.

올해 사업은 새롭게 변경된 가족친화인증 심사기준을 반영해 ▲가족친화의 날 의무 시행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1개 이상 운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4월 17일부터 2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062-613-7984)로 문의하면 된다. /길용현 기자

광주시,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

광주시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4월 26일까지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공모한다.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마을에서부터 안전한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역주민이 직접 마을의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해 해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회, 안전 관련 단

체 활동가 등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안전마을 주민협의체’가 주도한다. 협의체는 교통사고, 자살, 화재, 범죄, 생활안전, 감염병 등 지역안전지수 6대 분야의 안전의제를 발굴해 실행하고, 연말에 성과보고회를 통해 인접 마을과 사업을 공유, 확산을 유도한다.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협의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자치구 안전총괄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프로젝트 사업자는 사업

계획서 검토,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말 2개 마을을 선정한다. 선정된 마을에는 전문가 컨설팅과 최대 5,0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28일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절대적”이라며 “안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민주도의 안전한 광주공동체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행복노인전문요양원과의 만남을 환영합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내 부모님이 편히 쉬 수 있는 집이라는 이념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년간을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항상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